



장수 번안면 지사협, 독거노인 생신 축하 사업 실시

장수군 번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생신을 맞이한 홀몸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해 생신 축하와 선물을 전달하는 특화사업을 실시했다. 협의체 위원들과 맞춤형 복지담당 공무원 등은 3월에 생신을 맞은 어르신 댁을 방문해 케이크, 과일 및 먹거리를 전달하고 생신축하 노래와 기념사진도 함께 찍는 등 여느 가족과 같이 훈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생신 물품을 전달받은 어르신은 "매년 생일이 돼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 정작 생일을 잊고 지내는 해가 많았는데, 집까지 찾아와서 생일을 챙겨주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격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임실군 청웅면, 민민의 장 수상자 선정

청웅면이 오는 8일 열리는 '제42회 청웅면민의 날'을 맞아 민민의 장 심사위원회를 열어 공익장 이정희(64)씨, 문화체육장 박기용(71)씨, 효열장 김명산(73)씨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정희씨는 청웅초 41회 동창회장을 맡으면서 고향 행사에 헌신적으로 노력했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재경청웅면 향우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 고향을 홍보하는 데 힘썼다. 문화체육장에 선정된 박기용씨는 1996년부터 4년간 청웅면 번영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청웅면민의 단합을 위해 체육대회 등 여러 행사를 주최했고, 특히 청웅에 전리북도 도립사격장 유치에 크게 기여했다. 이어 효열장에 선정된 김명산씨는 차매를 앓고 있는 고령의 시어머니를 40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특히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웃과 어르신을 위해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경료효친사상과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장수소방서, 청명·한식 기간 특별경계근무 실시

장수소방서(서장 최경천)는 청명·한식 기간 중 식목 활동 및 상춘객에 의한 화재발생 위험을 낮추고 대형화재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해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경계근무는 농사 준비 24절기 중 5번째로 하늘이 맑아진다는 뜻의 청명과, 설·단오·추석과 더불어 4대 명절로 불리는 한식 기간에 입산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실시하며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 872명·소방차량 등 장비 51대를 투입해 4일 18시부터 7일 9시까지 돌입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불 우려지역 예방순찰 강화 등 산불 예방을 위한 화재 안전점검 및 위험요인 사전 제거 △소방력 동원령 발령 대비 자원결집지 운영·관리 계획 점검 등 화재 대비 현장 대응태세 확립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협조체계 강화 및 총력대응태세 유지 등이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청렴도 1등급 목표 '청백리추진단' 출범

부안군, 권익현 군수 추진단장으로 청렴한 행정문화 정착 '앞장'

부안군은 3일 열린 4월 열린공감의 날 행사에서 권익현 부안군수와 간부공무원 등 전 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청백리(淸白理)추진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청백리추진단은 권익현 군수를 추진단장으로 간부공무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부안군 청렴정책의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청렴회의체이다.

이날 출범식은 권익현 추진단장의 공직자 리더로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청렴한 행정문화 정착에 앞장서 타의 모범이 되고자 결의하는 청렴실천선언문 선포로 시작했다.

이어 권익현 추진단장이 군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부안군정 실현을 위한 서약서에 직접 자필 서명함으로써 부안군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실천 의지를 높이는데 앞장섰다.

청백리추진단은 앞으로 부패 사전 예방을 통한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효율성 극대화, 부패취약분야 개선 추진, 공직사회 적극행정 정착 등의 총사령탑 역할을



하게 된다. 청백리추진단장인 권익현 군수는 "2023년은 부안군정이 새로움으로 높이 날아오르는 '창신비상(昌新飛上)'의 해"라며 "지난해 부안군 공직자의 노력으로 전북지역 유일하게 청렴도 2등급을 달성의 성과가 있었다. 올해는 청백리추진단이 적극 앞장서 반드시 청렴도 1등급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소방서, 등산목 안전지킴이 운영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가 상춘객과 등산객의 증가로 산악사고가 급증하는 만큼 사고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태세 강화 및 안전한 산행확보를 위한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등산목 안전지킴이는 등산객이 가장 많이 붐비는 주말 및 공휴일에 지리산 비래봉 입구에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5명이 배치되며 5월 말까지 운영된다.

주요 활동으로는 △간이 응급의료소 운영 △응급환자 처치 △심폐소생술 체험장 운영 △구조구급함 및 안전시설물과 안내표시판 정비 △산악사고 및 산불예방 캠페인 등이 있으며, 특히 심폐소생술 및 AED 사용법과 중요성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소재실 서장은 "등산 전 반드시 산악사고 예방수칙을 숙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119에 신고해서 안전하고 즐거운 봄철 산행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 현대 간판 스타' 최철순, 부안군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전북 축구의 간판스타 전북 현대 모터스의 최철순 선수가 부안에 대한 애정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부안군에 따르면 최철순 선수는 고향사랑 기부금 최고액인 500만 원을 기부한데 이어, 4월 1일에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전북·포항전을 찾은 팬들에게 150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경품으로 선물하기도 했다.

최 선수는 답례품 중 부안 청자와 부안쌀 '천년의 솜씨' 등을 선택해 "경기장을 찾은 팬들에게 전달하며 고향사랑 기부제를 알리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며 "많은 사람들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익현 군수는 "고향이 아닌 부안에 기부를 결심하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다"며 "전북의 간판 스타인 최철순 선수가 부안군에 기부해 주셔서 감사하다. 부안 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소방서, '불 하트' 챌린지 화재 위험성 경고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가 최근 10·20대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불 하트 챌린지의 화재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불 스프레이는 프로판, 에탄올 등 인화점이 낮은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옷이나 건물로 옮겨붙으면 화상을 입거나 재산피해로 이어지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챌린지를 위해 스프레이를 벽이나 바다에 뿌리는 행위도 위험하지만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불 스프레이와 병행해서 사용하는 경우 잘 섞이지 않은 가연성가스가 촛불에 닿으면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스프레이가 피부에 묻어 불이 붙으면 잘 꺼지지 않아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사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6-2404	남원지사 632-0985	정읍지사 536-3767
호지지사 010-8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63-0444	장수지사 010-3882-615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658-98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